

특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1)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이 안의 호(10)에서 기록한 대로, 당시 노산군(단종)의 후사(後嗣)를 정하고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간곡히 의논하고 힘써 주장하였다. 이 때 조광조(趙光祖, 자는 효직, 1482-1519), 김경국(金正國, 자는 국경, 1482-1519), 김경(金淨, 자는 원충, 1485-1541), 김정(金宗, 자는 원충, 1485-1541) 등 기묘명현들도 간곡하게 의논하였으나, 결국 삼공(三公)과 예조판서가 동조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였다.

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자, 임금(중종)께서 듣기 싫어하시면서 안색을 변하기까지 하셨다. 그러자 권공(權公) 벌(機)이 바로 말씀드리기를 <예나 지금이나 천하의 사변이란 무상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국가에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저희들은 신속주(申叔舟)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삼문(成三問)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임금의 생각이 조금 누그러져 즉시 노산군의 능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주목사가 되어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자는 여해, 1545-1598, 그는 대대로 문반 文班의 뛰어난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이백록李百祿이 소장과 사림으로서 조광조의 지지주의에 뜻을 같이하다가 기묘사화 때 참화를 입고, 아버지 이정李貞은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가세가 기울자, 이순신은 1576년 무과에 급제하게 되었다)의 요청으로 적의 피로를 막아 분쇄하려고 하였다. 1601년 대구부사가 되었으나 얼마 후에 사직하였다. 그는 영천(榮川; 지금의 경상도 영주)에 머물며 김득과 김우옹(金宇穎, 자는 숙부, 1540-1603), 그리고 유성룡(柳成龍, 자는 이견, 1567, 호는 서예, 1542-1607, 임진왜란 때 영의정) 등과 교류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박학 다식에는 유성룡도 탄복하였다 한다. 예조 참판에 추증되고 문집에 "안촌집安村集"이 있다.

송씨의 신위와 함께 모셔, 신임군수마다 죽었던 변고를 막았다고 한다. 임기를 마치고 3년 후에 돌아와 이 일로 하여 선조 임금으로부터 많은 치하를 받고 흥문관 교리에 서용되었다. 임진왜란 때 안동부사와 경상도 안집사(安集使)로서 왜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 경상우도 관찰사, 도승지, 대사간, 한성부 우윤,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영천의 구산서원(龜山書院)을 재향하였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민절공(敏節公)이다. 문집에 "백암문집柏巖文集"이 있다.

원(山康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죽유문집竹籬文集"이 있고 편서에 "동사찬요東史纂要"가 있다. 권두문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높았다. 1572년 문과 급제 후에 1586년 형조정랑, 청도군수, 1592년 창평군수로 나아갔으나 임진왜란 때 아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으나 적의 정세를 세밀하게 탐지하여 밤을 도와 탈출하여 이에 관한 기록으로 "호구일록虎口日錄"을 남겼다. 이듬해 선조의 행재소에 이르러 봉상시주부, 예천, 진산, 영천, 금산 등지의 수령을 지내고 내자시와 통례원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책 읽기를 좋아하여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여러 책을 교수(敎書)하였다. 문집에 "남천집南川集"이 있다.

충재 선생은 41세 때 9월 25일 승정원 좌승지(左承旨)로 승진하였고, 10월 4일에 경연에 참석하였으며 다음날 불시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경연에 들어가 "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였다. 이 때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승지 김경국과 함께 강관이 되어 뜻을 강론하였는데, 임금이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고 웃음의 말씀도 하여 군신간의 분위기에 화기(和氣)가 돌았다. 11월 초하루에 경연에 들어가서 학교에 대한 일, 인재 추천에 관한 일, 독서당(讀書堂)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음란한 황후, 바보 황제
■ 권 중 달
(중앙대 교수, 삼학고전문학연구소장)
진(晉)의 무제인 사마염이 죽고 그 아들 사마충(司馬衷)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 받는데, 황후가 된 가비(賈妃)는 이제 그를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진무제 사마염(司馬炎)이 며느리 가비를 내치고 싶었으나, 위(魏)나라 시집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마씨의 위기를 구해낸 그 아버지 가충(賈充) 때문에 잠았던 것이다. 사마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魏)에서 실권을 잡았을 때에 황제인 고귀항공이 이를 참지 못하고 젊은 결기로 직접 칼을 빼 들고 사마씨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에 황제인 고귀항공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가충이었다. 사마염은 가충이 없었다면 사마씨는 실제로 위기를 맞을 뻔하였던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특별연재
국헌공 權弼과 漢文小說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다음날 아침, 흥립이 몸소 오랑캐 군영으로 가려고 하자, 장수와 병졸들이 모두 웃자락을 잡아당기고 발을 구르며 말했다. "사도(使道)는 어딘데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는 어딘데 가려고 하십니까?" 흥립은 때나라다 말고는, 말하였다. "교유격의 군사 십여 명이 우리 진영에 있으니, 오랑캐가 만약 이를 알기라도 하면 강화하는 일에 필시 해로울 것이다." 마침내 교유격 일행을 오랑캐 군영에 보내라고 명하였다. 교유격이 하늘을 우러르며 길게 탄식하였다. "조선이 예와 의리를 숭상하는 나라인가를 헤아려보지도 않고, 이릉(李陵)이 흉노에게 항복하여 포로가 된 것과 같은 굴욕을 기꺼이 받아들였어라. 심지어 명나라 군사(王人)를 결박하여 오랑캐에 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다니,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비단을 찢어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웃 때에 매고는 칼 위에 얹어져 죽으니, 은 군대가 비탄해 하였다.

전국꽃배달 서비스 전문업체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도·소매, 경조화환, 조경공사, 꽃바구니, 각종화환, 관엽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02)5752-5555 FAX (02)5750-656 H.P 019-240-4242

세무법인 和仁
대표 / 세무사 권혁창
Mobile:010-6304-6565
E-mail:fax21@yahoo.co.kr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